

# 민천주보

제2851호

2024년 11월 3일 | 연중 제31주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원당 성 김대건 안드레아 본당>, 2004년 설립

**입당송** | 시편 38(37),22-23 참조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1독서** | 신명 6,2-6

**화답송** | 시편 18(17),2-3,7,31,44-4,47과 51(◎ 2)

-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시옵니다. ◎
- 주님은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불, 저의 성채시옵니다. 찬양하올 주님 불렀을 때, 저는 원수에게서 구원되었나이다. ◎
- 주님은 살아 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느님 드높으시다. 주님은 당신 임금

에게 큰 구원 베푸시고, 당신의 메시아에게 자애를 베푸신다. ◎

**제2독서** | 히브 7,23-28

**복음 환호송** | 요한 14,23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 마르 12,28,31-34

**영성체송** | 시편 16(15),11 참조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 언니

언니. 여자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부를 때 ‘언니’라고 합니다. 물론 세대 차이가 많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을 것이며, 또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언니라 부른다면 이는 필시 여자들 틈에서 자란 남동생이, 바로 위의 누나가 순위 자매에게 “언니! 언니!” 하며 부르는 걸 보고 배워 그렇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한때, 저는 남자였는데도 언니라는 호칭을 많이 쓰던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후, 누가 그렇게 알려 주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신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여성 근무자를 언니라고 부르라는 권유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방 적응이 되었습니다. 주방 언니, 빨래방 언니, 접수실 언니, 매점 언니, 도서관 언니... 그 당시 우리와 나이가 같거나 우리보다 어린 이십 대 언니도 있었고, 엄마뻘 되는 언니도 계셨습니다. 아, 사십 년 전 그 언니들은 다들 잘 살고 계신지...

요즘 언니라는 호칭을 교우들 사이에서 많이 듣습니다. 예전에는 조폭도 아닌데, 교우들끼리 ‘형님’이라는 호칭이 날아다니는 걸 들으며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개 자매님’이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웠었는데, 요즘은 언니라 부르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여자 교우들 사이에서 형님이나 자매님이라는 호칭보다 언니라는 호칭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언니는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표현이고 자매님 혹은 형님은 거리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일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소한 용어 사용의 변화를 보며 한편으로는 세월이 변한 걸까 하는 생각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공동체의 모습이 신앙공동체가 아닌 사회의 어떤 모임처럼 변해가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모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살면서 사용한 언어들, 모두 모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의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철학자의 표현을 빌리지 않아도, 분명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통해 분명 그 사람의 의식, 관심, 사상, 나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을 대면한 율법학자의 슬기로운 대답을 듣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마르 12,33)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황금률은 머리로 외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말들로 살아가느냐를 통해 그 사람이 진정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신앙고백은 교회의 전례 안에서 외치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마르 12,31 참조)는 이 황금률 역시 우리가 내뱉는 말 그리고 행동을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내뱉도록 하는 우리의 의식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의식이어야 저절로 그 의식의 말로서, 말을 넘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느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의식하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김승욱 베드로 신부  
상1동 본당 주임

# 세계청년대회(WYD)의 시작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 | 교구 청소년사목국 국장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작년 8월 6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제37차 세계청년대회의 마지막 행사인 주일 삼종기도 후 차기 개최지를 발표하셨습니다.

“다음 세계청년대회(제41차)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따라서 2027년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여러분 모두가 증거한 일치를 향한 꿈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징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교황님의 발표에 파견 미사를 함께한 세계의 청년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개최지 발표를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한국의 청년 순례자들은 제단 위에서 태극기와 현수막을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이후 한국 교회는 세계청년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신자분들도 여러 매체나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청년대회나 WYD에 관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세계청년대회의 본래 명칭은 World Youth Day(세계 젊은이의 날)입니다. 여기에서는 줄임말인 WYD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WYD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교황님은 젊은이 사목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즉위하시면서 “청소년은 세상의 미래이며, 교회의 희망이고 자신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고, 1983년에는 로마에 ‘성 노렌조 청소년센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25일부터 1984년 4월 15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까지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1950주년을 기념하는 ‘구원의 성년’을 선포하시면서, 성년을 마치는 청년들을 1984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로마

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날 성 베드로 광장에는 교황님의 초대에 응답한 청년 25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에 감격한 교황님은 청년들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굉장한 장관이군요! 누가 요즘 젊은이들이 가치관을 잃었다고 했습니까?”

이듬해인 1985년은 UN이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해’로 로마에서 청소년대회가 열리게 되자 교황님은 청년들을 다시 성지 주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전년도보다 많은 30만 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부활 대축일에 교황님은 매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을 ‘세계 젊은이의 날’로 제정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다음 해 1986년 ‘세계 젊은이의 날’인 3월 23일에 로마에서 제1차 세계청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로마에 모인 청년들을 다시 만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젊은이들이여, 우리는 오늘 여기 성 베드로 광장에서 WYD의 전통을 시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WYD는 전 세계 교회가 초대된 축하 행사이며, 이 위대한 전통을 이제 로마에서 시작합니다. WYD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의해 인간의 역사에 자리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WYD는 이렇게 은총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 갈갈수녀님



정인환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 마르코 12:31

# 하느님 첫사랑의 하늘 아래서

고은하 세실리아 수녀 |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버스에서 내려 발이 땅에 닿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폭우에 신발과 옷 끝이 젖기 시작한다. 드디어 이승훈 베드로 성지에 갈 수 있다며 손꼽아 기다려온 설렘이 우산 속에서 휘청거리고 있다.

‘인천교구 순교자 현양대회’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다. 땀 뚫린 하늘을 향해 행사장의 중앙 좌석들은 일찌감치 텅 빈 마음으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온몸으로 맞고 있고, 건물 기둥 아래로 웅기종기 모여든 사람들만이 장단 없는 아우성으로 웅성거린다. 굵은 비는 짙은 구름을 내세워 그칠 기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주기도가 장대비를 벗 삼아 방울방울 노래가 되어 하늘에 울려 퍼지며 행사는 시작되었다. 소리만큼은 빗소리에 양보하지 않으리라는 우리들의 순교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기도 하듯, 우렁찬 목소리가 하나 되어 더 구슬피 묵주기도를 외쳐 부른다. 매괴의 고리가 한 올 한 올 엮여 다발이 되고 하늘에 올려질 때마다 지치지 않는 기도의 노랫소리에 먹구름이 잠시 낮을 잃은 걸까. 하늘의 자리를 뜨지 않은 먹구름이건만,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더니 묵주기도의 끝자락에 비가 멎는 것이 아닌가. 미사가 시작되고, 주교님께서 사제단과 입당하시고 “여러분의 묵주기도에 비가 멎었습니다.”라는 주교님의 첫 말씀이 울려 퍼지자 우리는 모두 한마음으로 터져 나오는 기쁨의 함성과 박수를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로 올려드렸다.

그 하늘이 폭염주의보가 된 어느 오후.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무작정 나선 길은 다시 이승훈 베드로 성지였다. 인적 드문 길 위에 살인 더위라는 죄

명답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오라도 하라는 듯 땀과 끈적임으로 나를 무장시키고, 묘를 향해 올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만만치 않은 인생길을 다시금 하나하나 새겨주었다. 각 처에 저마다 작가의 섬세한 손길로 표현된 예수님의 수난이 더 애잔하게 마음에 파고드는 시간.

도착한 묘에는 참수로 생을 마감한 이승훈 베드로의 넋이 진토되어 있었다.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었을까. ‘헛살았구나’ 싶은 절망이 마음을 짓누르는 날. 참수의 길을 선택했던 이승훈 베드로의 용기가, 십자가의 길에서 수없이 넘어졌을 주님께서 신음 속에 다시 일어서시는 소리가 오늘 나를 울리며 다시 걷게 하신다.

순교자 현양대회 날 장대비가 미사 시작과 함께 그쳤을 때, 내가 감동에 차서 말했었다.

“하느님께서서는 인천교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멈추다니...”

“하느님께서 인천교구를 많이 사랑하셨다면 비가 오지 않았어야죠.”

단호했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내 뒤통수를 칠 때 나는 소리 없이 두 손을 모으며 내 마음을 띄웠다.

“그랬다면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동과 기쁨의 환호성은 미지근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 한국교회의 선구자로 뽑아 교회의 모퉁잇돌로 세우시며 첫 세례를 베푸신 이승훈 베드로. 국내에서 우리 수도회의 첫걸음이 시작된 곳, 인천교구는 하느님의 첫사랑으로 빛나고 있다. 이곳에서 소임을 할 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감동인지.

참수 날의 하늘이 천상의 문이 되어 열리고 오늘의 하늘이 되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한결같이 흐르고 흘러 눈부시게 빛나 오늘에 이른 하늘이 순교의 넋을 기리고 있었다. 그와 같은 하늘 아래로 나를 부르신 하느님. 인생의 장맛비도 폭염도 맛갈스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소서. 아멘.

**이승훈 베드로 성지  
성지순례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

대 상: 고은하 세실리아 수녀(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답동 주교좌 성당 소임)  
우수상: 이정애 베로니카(중2동 성당)  
장려상: 김경자 엘리사벳(수원교구 신남 성당)

인천교구 교회문화유산 발굴, 수집 집중 기간 결과 보고



## 소중한 신앙유산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천교회사연구소는 잊히거나 사라질 위기의 소중한 신앙 유산을 지키고자 매해 인천대목구 설정일(6월 6일) 즈음해 교구 내 교회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발굴 수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인 유해 1점과 전례용품 7점, 고도서 98점, 기타 일상 신앙 용품 등 총 116점이 기증되었습니다. 특히 1882년 나가사키 활판인쇄소에서 출판된 다블뤼 주교의 세례성사 안내서 ‘영세대의’와 고해성사 안내서 ‘성찰기략’, 1965년 전례개혁 이전의 한글 음차 그레고리안 성가책 등, 자칫 무관심 속에 사라질 수도 있었을 소중한 유산들이 다수 발굴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3기 천주교인천교구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인천교회사연구소와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천주교인천교구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3기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본 양성과정 수료와 소정의 실습 후 교구장 명의의 수료증 및 교구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교구 내 박물관, 순교지, 교회 건축물, 성미술품, 인천 지역 교회사 순례 등의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해당과정은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인원이 선착순 제한됩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인터뷰)

- 대 상** 사제, 수도자, 평신도 20명 내외
- 구비 서류** 자기소개서(사진 부착 필), 지원사유서, 교적사본제출 -모든 서류 별도 양식 없음
- 신청 방법** 이메일 (storiain@caincheon.or.kr) 또는  
우편(인천시 동구 박문로1 인천교구청 청소년센터 2층 203호 인천교회사연구소)
- 강의 일시** 2025년 3월 7일 ~ 5월 23일 오후 7시 (매주 금, 총 13강)
- 접수 기간** 2024년 12월 9일 ~ 2025년 1월 19일
- 강의 장소**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 수 강 료** 30만원(원서접수, 선발심사 후 등록 확정 후 입금)  
-일정 및 수강료 입금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등록 확정 후 개별 통보
- 문 의**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032-765-6931, 인천교회사연구소 032-765-7257

교구청

노동사목 무료 노동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노동조건 변화, 고용 차별 등  
문의: 032-502-3009

경청대화모임

일시: 11/18 19:00 노동자센터(경인로 671)  
문의: 032-765-6970 정의평화위원회

제4회 교구 청년 1945 창작생활성가제

일시: 11/24(주일) 15:00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5-6964

교육 | 미사

제1기 이승훈 베드로 성지봉사자 양성피정

일시: 11/14(목) 10:00~17:00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  
대상: 성지 전례 및 순례해설 봉사 지원자(총 40명)  
서류: 자기소개서(지원동기, 사진부착필), 교적사본  
이메일(sungi@caincheon.or.kr) 또는 우편접수  
신청기간: 10/13~11/5  
신청비: 3만원(신청확정 후 입금, 중식 제공)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지혜의 샘 11월 프로그램

11/4 위령성월 추모 피정: 이상희 신부, 한영임 회장  
11/18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장재봉 신부, 한영임 회장  
장소: 지혜의 샘 북방선교 기도공동체  
문의: 010-3248-9705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12/21(토)~22(주일)  
[3박 4일] 11/28(목)~12/1(주일), 5(목)~8(주일)  
[8박 9일] 11/14(목)~22(금), 12/26(목)~25/1/3(금)  
[40일] 12/14(토)~25/1/22(수)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성서주간 '말씀의 잔치'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마르 4,10-12 말씀묵상)  
일시: 11/26(화) 10:00~13:00 부평1동 성당  
강사: 정천 요한 사도 신부(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대상: 교구 전신자  
접수: 각 분당 말씀의 봉사자(가톨릭성서모임),  
교구 성서사도직에 접수  
마감: 11/17(주일)까지 (1인당-1만5천원)  
문의: 032-765-6967 교구 성서사도직  
cbml-incheon@naver.com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한라산 눈꽃 산행 접수 중)  
·자연순례: 11/21~23, 25~28(추차도),12/1~3,  
12/6~8, 14~16, 25/1/11~13, 16~18, 20~22  
·연말연시(한라산, 해님이, 해돋이): 12/29~25/1/1  
대상: 개인, 가족, 분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성지순례(추차도 포함): 11/18~21, 24~27  
생태순례: 12/7~9, 13~15, 25/1/17~19  
한라산 눈꽃산행: 25/2/8~10, 14~16, 22~24  
연말연시: 12/30~25/1/2(한라산 눈꽃산행)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마리아의 종 수녀회 피정

·신약성경 통독: 11/15(금)~18(월)  
·쉽고 있는 음악피정: 11/22(금) 19:00  
문의: 010-6844-8221 마리아의 종 여성 피정집

ICPE 몸신학 피정(시그널 심화)

일시: 11/22 저녁~24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대상: 가톨릭 젊은이 청장년  
문의: 010-5646-6594(ICPE 카톡플친)

11월 전례꽃꽂이 월례미사 및 교육

일시: 11/7(목) 14:00 박순집 베드로 홀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11/15(금)~17(주일),  
12/6(금)~8일(주일) [2박 3일]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인천) (회비 없음)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故 차동엽 노르베르토 신부 선종 기일 미사

일시: 11/12(화) 14:00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운행: 13:30 장기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군중교구 호국영령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

일시: 11/6(수) 10:00 동작동 국립현충원 내 현충관  
집전: 군중교구장 서상범 주교 외 군중사제단  
대상: 수도권지역 유가족, 군 및 일반신자  
문의: 02-749-1921

주교회의노동사목소위원회 정기 토론회

기후 위기 그리고 노동의 미래  
일시: 11/7(목) 14:00 명동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32-865-6792

노틀담 대림 묵상 기도모임(별헤는밤)

일시: 11/27(수) 19:30~20:30 매주(수) [총 4회]  
장소: 노틀담수녀원(계산동)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선착순 10명  
문의: 010-3930-6730

모집 | 일반

갈산동 성당 교종미사 지휘자 모집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puca-0661@nate.com  
문의: 010-9154-9325 성가대 단장

이주의 녹색순교

COP29 알아보기



COP29  
Baku  
Azerbaijan

COP(Conference of the Parties)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말합니다. 11월 11일부터 중동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진행되는 COP29의 주제는 '기후금융', 곧 개발도상국의 기후 대응을 위한 기후 재원 목표를 수립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년 연속 중동 산유국에서 개최되는 COP의 이번 의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앞으로 10년 동안 화석연료 생산량을 약 33%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의 깨어있는 이들이 '화석연료비 확산조약(FFNPT)에 가입하고, 이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거대한 힘으로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생태환경보호의 시급성을 체감하고 있는 오늘, COP29를 통해 '희망'이 있는 인류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방문 및 온라인 위치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접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인천성모병원 신규 자원봉사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성인 남·여  
문의: 032-280-6221~2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신청 방법: 의정부교구 홈페이지-소식-교구소식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안내’ 게시물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 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진료: (월~금) 9:00~17:00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http://www.karf.co.kr)

**25학년도 가톨릭 유아교육기관 신입 원아 모집**

대상: 연령(2019~2021년생)  
※ 각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문의  
·부평4동 성심유치원 010-9399-2319  
·계양구 계산2동 노틀담유치원 032-542-1060  
·부평3동 성아유치원 010-8874-5305  
·남동구 만수동 복자유치원 032-464-2740  
·중구 답동 박문유치원 032-762-7614  
·부천 소사동 분도유치원 032-347-6155  
·역곡 혜성유치원 032-344-3614  
·계양구 임학동 마리아 유치원 010-4830-7713  
·가정동 성모어린이집 032-583-6987  
·미추홀구 성바오로유치원 032-875-6204

**예수성심 인천천교회(재속)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남·녀 교우  
문의: 010-8752-9566

**가톨릭상지대학교 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 2차: 11/8~22  
문의: 054-851-3021~2 입학홍보처  
<http://ipsi.csj.ac.kr>

**교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 1회]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교구 가톨릭스카우트 모집**

신앙 안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스카우트 활동  
대상: 유치부~대학생까지 대장, 대원 모집  
문의: 010-2484-0072

**프란치스코 전교봉사수녀회 젊은이 모임 및 상담**

일시: 11/9(토) 14:00  
장소: 서울 명동 전진상영성센터  
대상: 만 39세 이하 가톨릭 미혼 여성  
문의: 010-3679-7198 강 피아 수녀

순례 | 기타

**해외 성지순례**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지도사제 동행(미사)  
문의: 010-5909-5997 김명윤 베네딕도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5/1/14, 2/10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25/2/17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50만원  
25/3/14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2일] 560만원  
25/3/28 사도 바오로 발자취(터키, 그리스) [12일] 48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25/2/10, 3/17 이탈리아 일주(히년 전대사)  
25/2/11, 3/25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25/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25/1/15, 2/11, 3/11 포르투갈(파티마) 일주  
25/3/10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25/4/24~5/5 성모발현지 520만원  
문의: 010-7374-3217

**해외 성지순례**

25/1/26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 [12일] 460만원  
25/3/3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95만원  
25/3/11 동부유럽 4개국 [11일] 395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http://www.cttour.org)

**국내·외 성지순례**

11/13(수), 23(토) 원주교구 대안리공소,  
배론성지, 풍수원 등  
10/21~25 나가사키, 고토  
11/4~8 다낭 성지순례  
11/15~19 나트랑, 달랏  
11/29~12/4 하노이, 양코르왓  
문의: 010-9200-3532

**해외 성지순례**

25/1/6 멕시코(과달루페, 칸쿤) [10일] 715만원  
25/1/15, 3/9 포르투갈 일주 [9일] 299만원  
25/1/17 시칠리아, 몰타 [10일] 485만원  
25/2/12 성모발현지 [12일] (대한항공) 495만원  
25/2/24, 3/3 터키, 그리스 [11일] 초특가 385만원  
25/3/26 대한항공 이탈리아일주 [9일] 419만원  
문의: 02-778-8565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at/>



**어린이 그림 기도서 - 주모경**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첫 기도

『어린이 그림 기도서-주모경』은 말을 배우기 시작한 영유아부터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들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도서입니다. 이 책은 기도의 의미를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기도문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을 때, 『어린이 그림 기도서-주모경』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와 함께 기도하며 아이에게 깊이 있는 기도의 의미를 심어주는 훌륭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순간을 이 책과 함께 만들어보세요.

천주교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제작  
가톨릭출판사 | 14,000원

